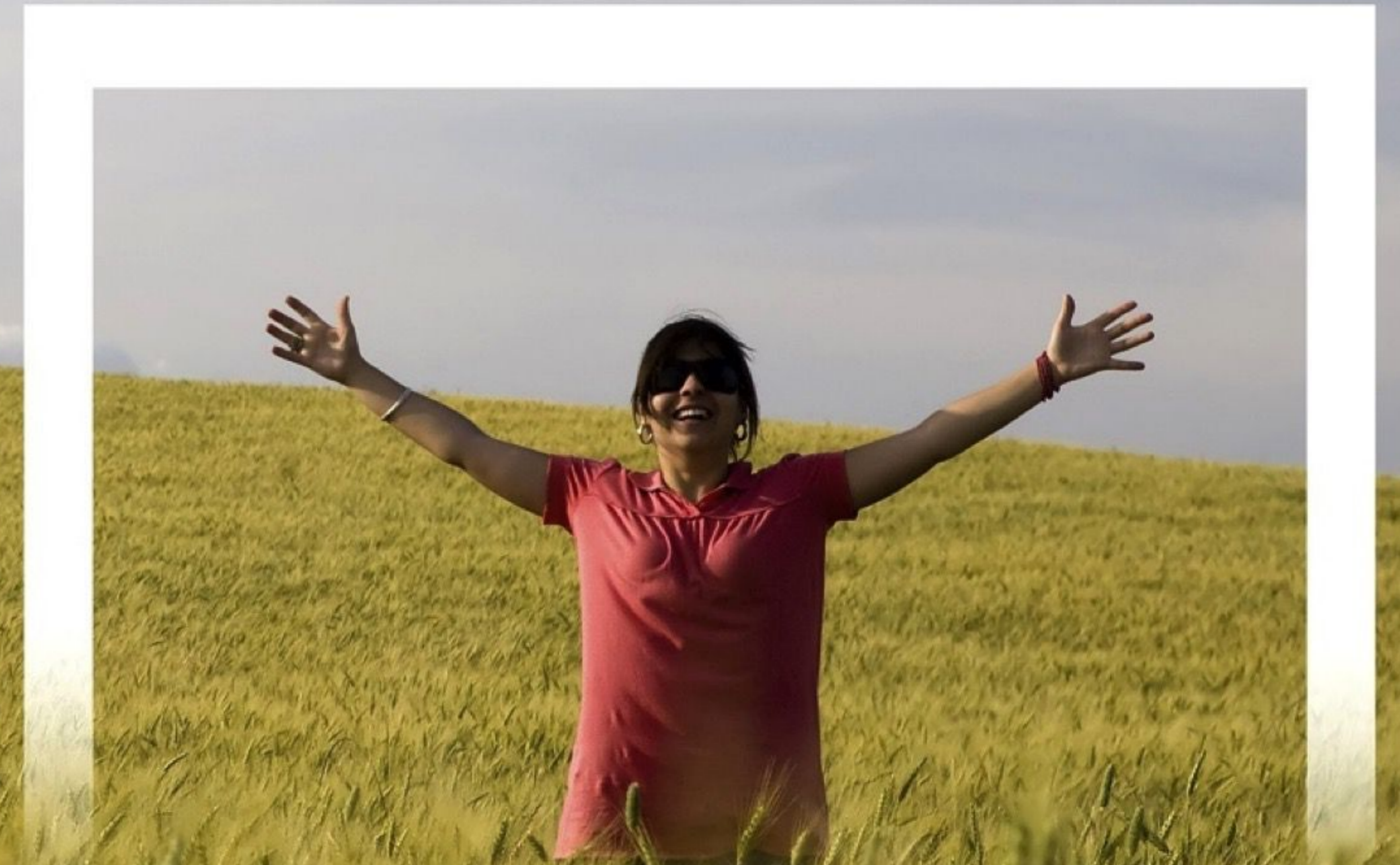


마음의 치유12

- 속사람과 겉사람-



KAINOS HEALING MINISTRY



옛사람? 새사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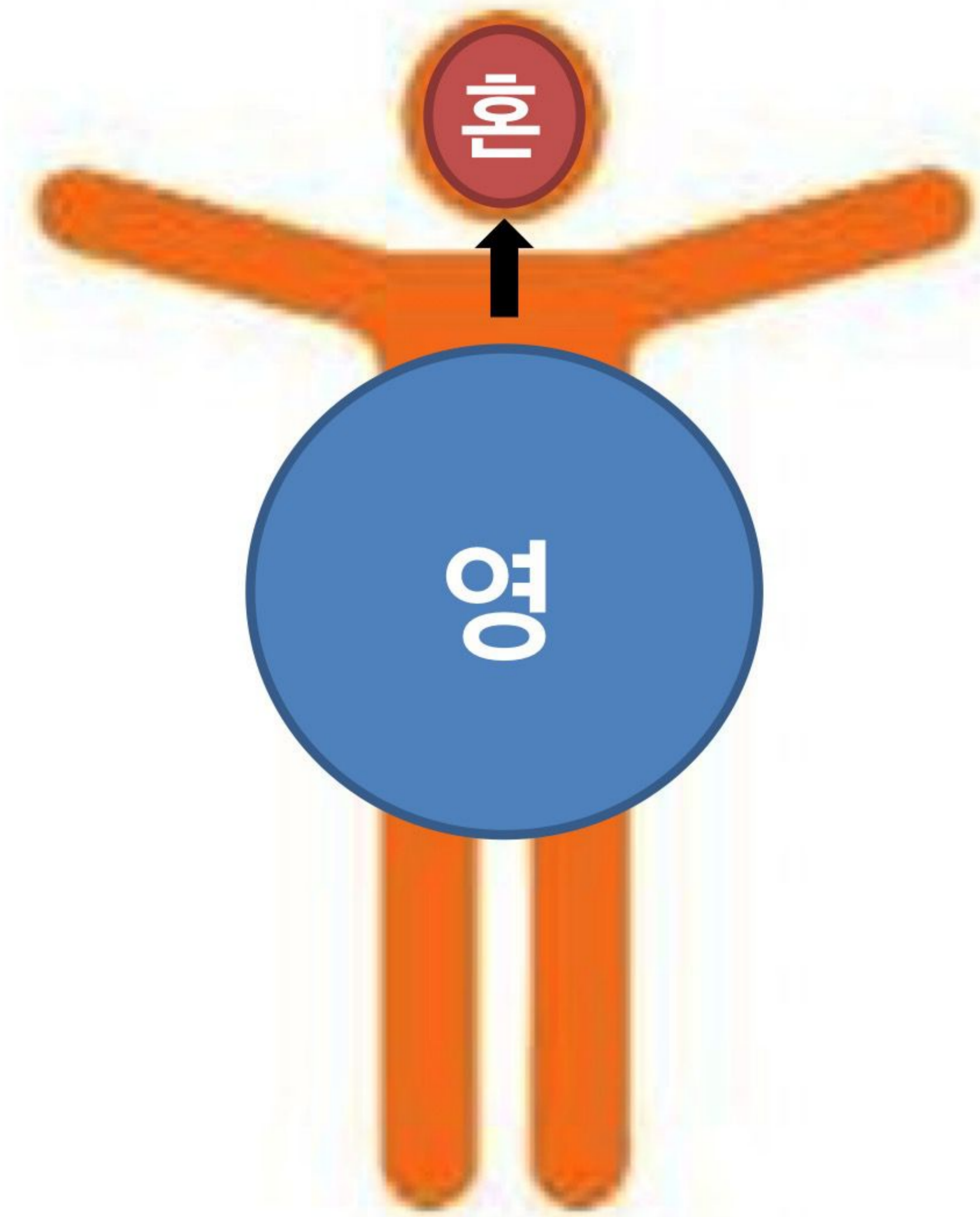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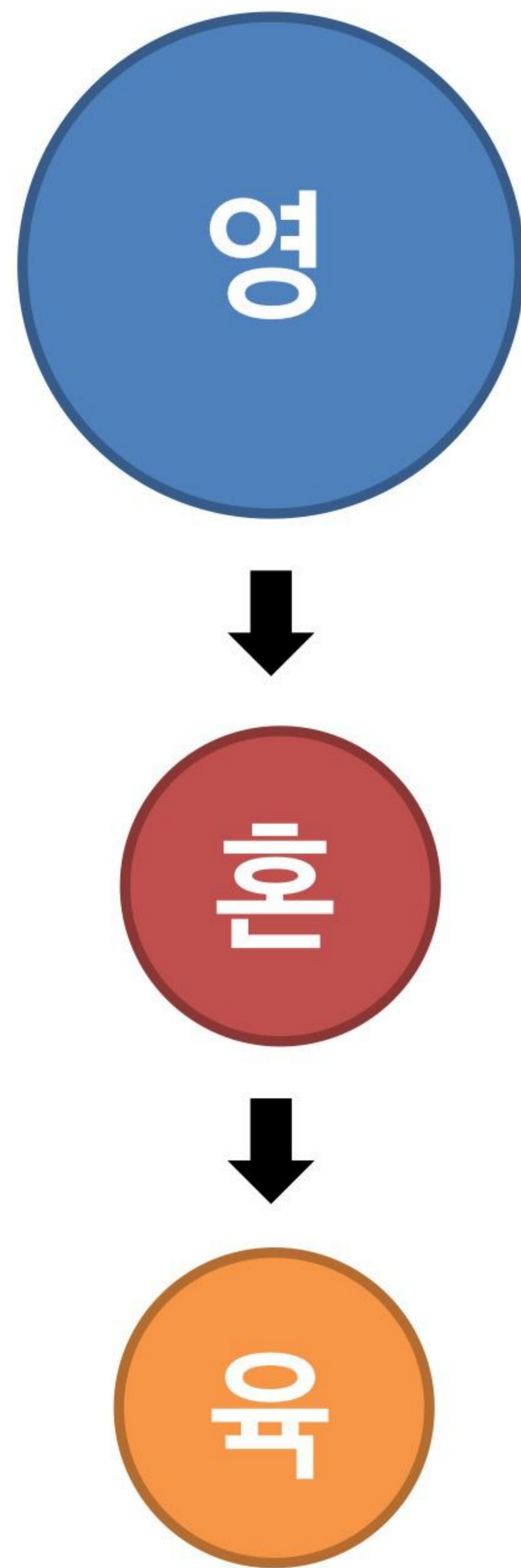


- 영의 변화는 즉각적이며 완전하다
-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(Savior)와 주인(Lord)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이 거듭나게 되어 (중생) 새사람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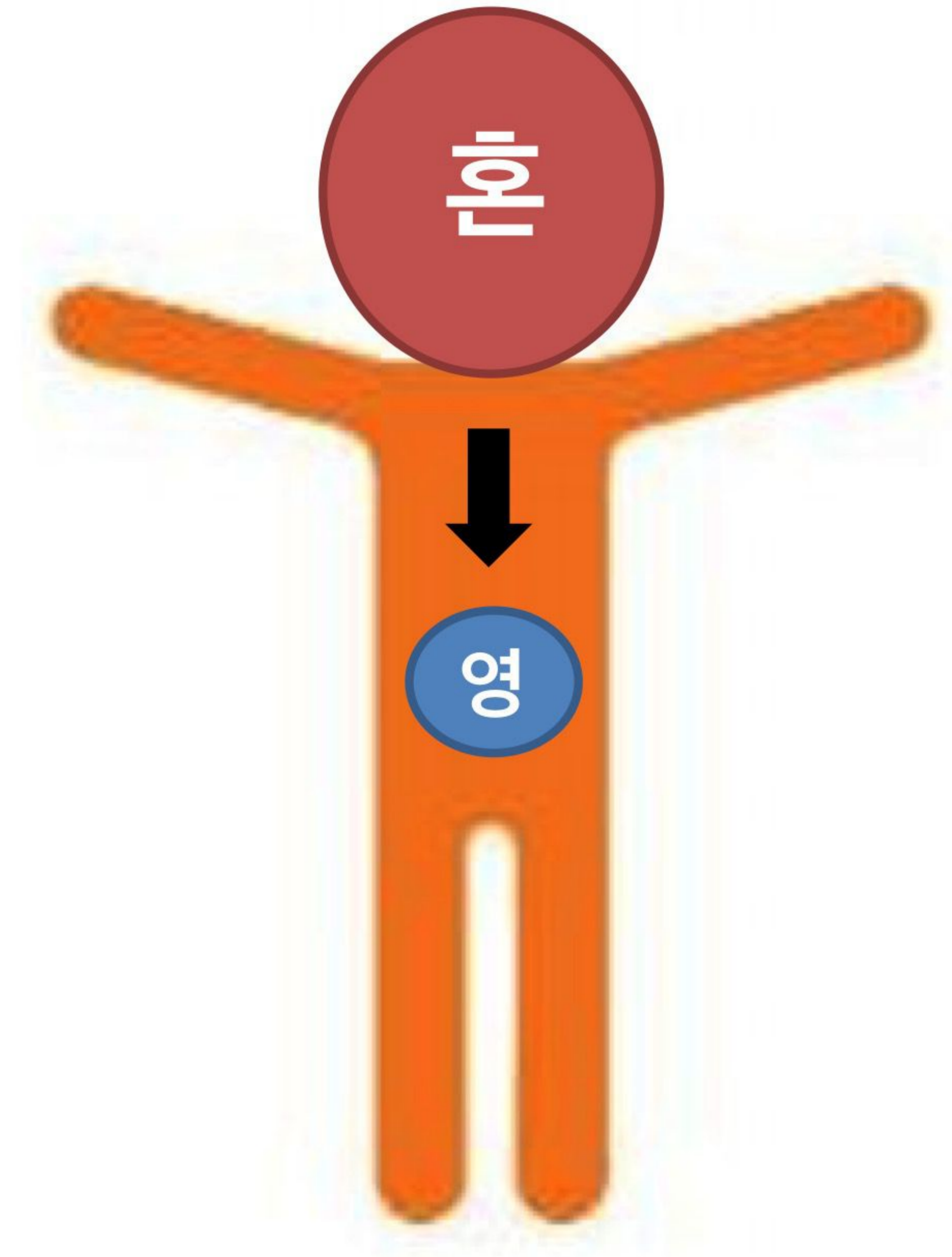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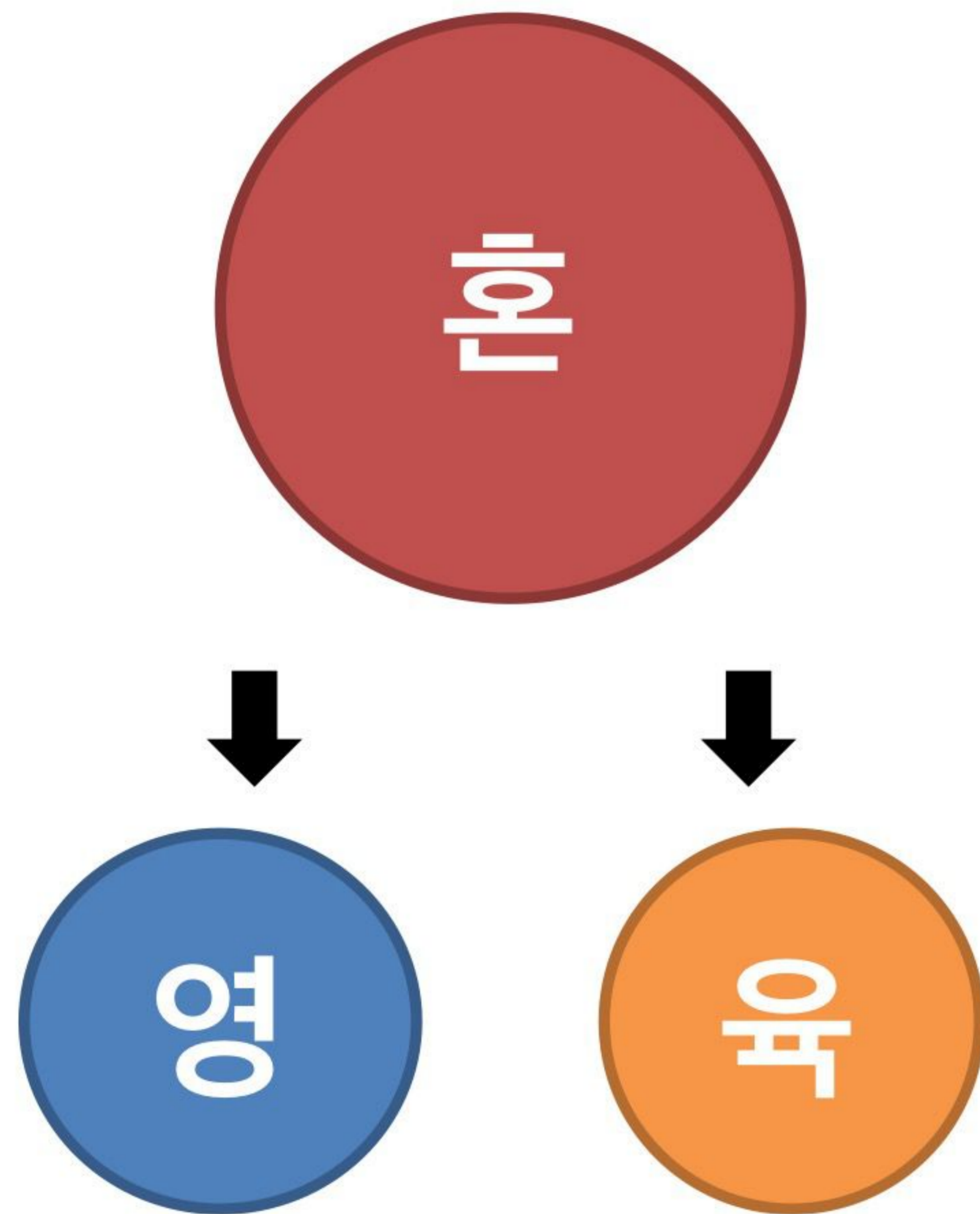
속사람? 겉사람?

- “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**겉사람**은 낡아지나 우리의 **속사람**은 날로 새로워지도다” - 고후 4:16
- **신자안의 두 사람**
속사람- 신자의 (거듭난) 영
겉사람- 신자의 (변화되지 않은) **혼과 육**
- 신자는 **하나님의 본성**과 자신의 **죄성**을 가지고 살게 된다
- 영의 변화는 즉각적인 반면에 혼의 변화는 점진적이다

속사람이 강한 상태



걸 사람이 강한 상태



속사람과 겉사람의 대립

- “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
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
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
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
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”
- 갈 5:16-17
- **성령**의 소욕- **속**사람의 소욕
육체의 소욕- **겉**사람의 소욕

왜 **혼과 영을 분리**해야 할까?

- “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사람속을 꿰뚫어 **혼과 영을 갈라내고**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, **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 냅니다**” - 히 4:12 (새번역)
- 말씀은 혼과 영을 분리해서 나의 **걸사람을 볼 수 있게** 해 준다

겉사람의 특징

- “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좃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좃아 온 것이라” - 요일 2:15-16
- 겉사람- 육신, 육신의 생각, 육체의 소욕
-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자- 육신에 있는 자, 육신을 따르는 자

구원- 이미, 그러나 아직

- “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” - 고후 5:17
- **영**- 이미 새롭게 되었다 (중생, 칭의)
- **혼**- 새롭게 되는 중이다 (**자기부인, 성화**)
- **육**- 새롭게 될 것이다 (부활, 영화)

왜 겉사람을 복종시켜야할까?

- “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” - 롬8:6-7
- “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” - 롬8:13

겉사람은 **하나님을 대적한다**

- “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” - 롬 8:7
- “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” - 약 4:4

왜 **끝까지** 깨어있어야 할까?

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**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**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**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**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”

- 히3:12-14

구원의 안내자, **성령님**

- **성령께서 신자안에 내주하시는 이유**

성령님의 사역

-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다- **중생**
 -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- **성화**
 - 마지막 날에 신자를 부활시키신다- **영화**
-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함으로써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께 있다